

카페 문화에 부는 변화의 바람

말레이시아사무소

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의 등장

- 소위 '빅 체인(Big Chains)'이라 불리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카페문화가 발달했던 말레이시아에 신 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. 그 중심에는 스페셜리스트 커피 숍(Specialist Coffee Shop)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 가 자리하고 있다.
-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이란 재배 단계부터 커피로 내릴 때까지 잘 관리된 원두를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내리는 카페를 의미하는데,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에 더해 독특하거나 잘 꾸며진 외관을 갖추는 것이 점차 카페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.
- 2017년 한 해 동안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은 매장 수와 거 래량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었다. 이 러한 추세는 변화하고 있는 카페문화로 인해 당분간 지 속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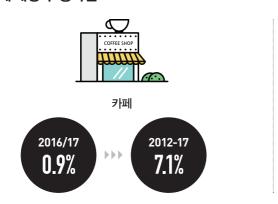
카페 호핑, 새로움을 마시다

- 말레이시아 젊은층 사이에서는 '카페 호핑(Cafe Hopping)'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. 카페 호핑이란 잘 꾸며진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을 방문해 새로 출시된 음료를 마시는 유행을 일컫는 용어이다.
- 젊은충들은 카페 호핑을 통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한다.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업무협의 등을 위해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.

꼬삐띠암과 스페셜리스트 커피숍

• 말레이시아에는 일반적으로 '꼬삐띠암(Kopitiam)'이라는 카페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다. 꼬삐띠암은 말레이시아, 브루나이, 싱가포르 등지에서 음식을 곁들여서 파는 전통적인 카페를 일컫는 말이다.

카페 매장 수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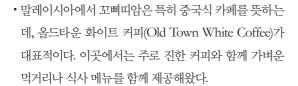




출처: Euromonitor "Cafs/Bars in Malaysia(2018)"



'꼬삐띠암(Kopitiam)'이라는 카페문화



• 최근에는 꼬삐띠암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카페가 등장하면서 커피 맛이 변화하고 있다. 쓰고 무거운 커피 를 판매하는 꼬삐띠암과는 달리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에 서는 가볍고 달콤하며 과일향이 가미된 호주산 스페셜 티 커피를 제공한다.

카페와 일터가 접목되는 곳, APW 방사르

- •최근 커피 트렌드가 가장 독특하게 발현된 곳은 바로 APW 방사르(APW Bangsar)이다. 수 년 전 인쇄소 소음만이 들려왔던 이곳은 오늘날 북적이는 사람들의 말소리로 가득하다.
- APW는 'Art Printing Works'의 약자로, 말 그대로 상업 인쇄소였으나, 2013년 활용되지 않던 공간을 재구성하 자는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 났다. 행사나 업무공간, 레스토랑과 더불어 스페셜리스 트 커피숍까지 갖춘 APW 방사르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.



APW 방사르(APW Bangsar)

• APW 방사르의 카페는 말레이시아의 카페 트랜드를 가장 잘 보여준다.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답게 아프리카, 아시아, 남미의 다양한 커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SNS에 올리기 좋은 감각있는 디자인으로 매장이 꾸며져있기 때문이다. 인기 커피숍답게 자리가 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.

새로운 맛과 형식을 고민할 때

- 호주나 싱가폴 같은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의 카페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. 식사와 커피를 곁들여 먹 는 꼬삐띠암에서 점차 다른 커피와 차별성을 갖춘 스페 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.
- 그에 맞춰 소비자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다. 카페라는 공 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,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 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커피를 소비하며 이 모든 것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.
- 점차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도 스페셜리스트 커피숍들이 입점하고 있는데, 이에 발맞추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 는 국내업체들 또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맛과 형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.